

생산성 향상으로 IMF를 극복한 두아름 목장의 김진황 씨



김진황 / 두아름목장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용두리

“생산성 향상, 전업 규모화, 육질 고급화”
이것이 김진황사장이 이야기하는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이다. 합리적인 관리와 깨끗한 환경,
고효율의 영양이 뒷받침된다면 사육기간을 20%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는 신념아래 사양관리 방법을
개선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두아름목장의 김진황사장은 현재 600평과 400평 짜리 두 동의 우사에서 홀스타인 비육우 300여 두를 사육하고 있다.

김사장이 낙농을 그만두고 홀스타인 비육우를 시작한 것은, 홀스타인이 한우에 비해 성장률이 높고, 조사료 없이도 사육이 가능하며, 송아지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생산성만 높일 수 있다면 단기간에 전업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두아름목장은 실제로 95년 8월 초유떼기 70두로 시작하여 1년만에 용두리 목장에서만 120두 규모로 확장하였고, 97년에는 미양면 갈전리에 있는 제2목장에 약 180두를 추가로 입식하여 300두 규모의 명실상부한 축산 전업농으로 성장하였다.

물론, 김진황사장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98년 IMF로 인해 생산비는 올라가고, 소값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뼈아픈 시기를 4년동안 두 번이나 겪어야 했고, 규모확장으로 인한 자금부담도 여간 큰 고민거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끊임없는 생산성향상과 신기술개발로 이미 안정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최고의 생산성을 올리는 농장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김사장의 숨은 노력과 축산업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생산성향상만이 유일한 방법

몇 년 전만 해도 초유떼기 송아지를 출하체중 600Kg으로 사육하는데 최소한 15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두아름목장의 김진황사장은 합리적인 관리와 깨끗한 환경, 고효율의 영양이 뒷받침된다면 사육기간을 20%이상 단축시

킬 수 있다는 신념아래 사양관리 방법을 개선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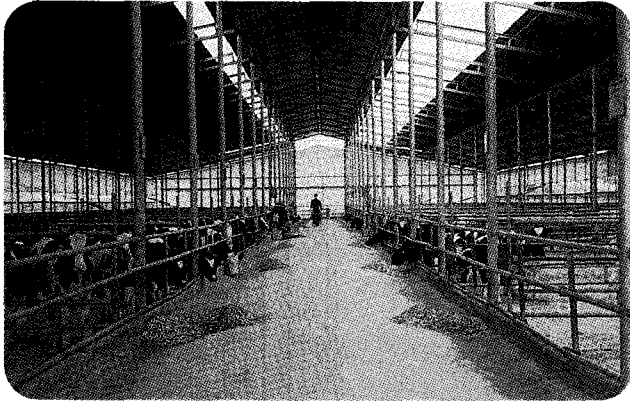
그 결과 사육기간을 2개월이상 단축하여 초유떼기 입식후 평균 13개월령 이내에 전 두수를 600Kg이상으로 출하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제 또다시 사육기간을 1개월 더 단축시키기 위한 도전에 돌입한 두아름목장의 김진황사장은 “어떻게 하면 소를 잘 키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해준다.

첫째는, 소에게 최상의 사육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비육우 사육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짧은 기간에 많은 영양을 섭취하도록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가 양질의 사료를 먹은 후에 편히 누워서 충분히 되새김을 할



벗짚이 필요없는 사료를 선택하여 노동력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 두아름목장



수 있도록 우사 바닥관리를 잘 해 주고,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차량 및 기계소음을 막아주며, 휴한 및 혹서기에 대비하여 환기와 음수관리를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준다.

둘째는, 합리적인 사양관리 능력이다.

비육우의 성장이 정체되는 이유는 대부분이 호흡기 또는 대사성 질병에 감염되거나, 각종 스트레스가 주된 요인이다. 특히, 우군마다 위축우 발생을 줄이고 일정한 증체량을 얻기 위해서는 체중별 우군편성이 꼭 필요하다.

두아름농장은 퓨리나 안성특약점 서비스팀의 지원을 받아 3개월령, 6개월령, 9개월령에 계근과 군편성, 비육촉진제 주입, 구충과 위축우 특별관리로 보다 높은 일당증체량을 얻고 있다고 한다.

셋째는, 완전하고 균형된 영양공급에 있다.

육성기 제한급여를 자유급여로 전환하여 육성기 증체량을 극대화시키고, 벗짚급여가 필요없는 질 좋은 사료로 일관 사육하여 사료효

율을 개선하였으며, 계근 사료를 기초로 체중별 정확한 사료급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최대의 증체 효과를 이루어내고 있어, 환경, 사양관리와 함께 고효율 사료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쇠고기 수입 완전개방에 생산성으로 대응

2001년 생우나 쇠고기 수입이 완전 개방되어 관세 없이 수입쇠고기가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면 우리 축산업계는 또 한번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값싼 수입쇠고기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여 생산단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육질을 고급화하여 수입쇠고기보다 더 맛있는 고기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쇠고기 수입 완전개방에 대한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사장은 이렇게 말한다.

“수입쇠고기를 이기려면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비를 낮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보다 정밀한 사육 목표를 세워야 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수입쇠고기 극복을 위한 두아름목장의 사육목표

이러한 목표는 아직 누구도 달성하지 못한 것이지만, 육군장교 출신인 김사장 특유의 도전정신과 프로의식으로 볼 때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육우도 거세 고급육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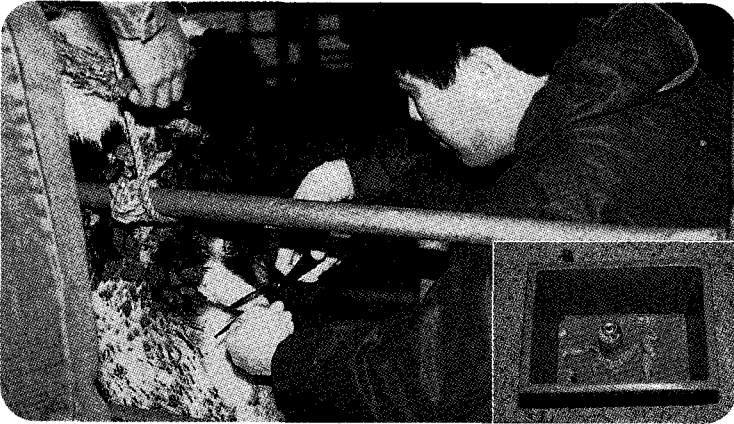
한우의 고급육 생산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도되고, 또한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국내소비여건상 고급육 시장이 넓게 형성되지 못하고, 아직 생산성 수준이 낮아 가격경쟁

표. 수입쇠고기 극복을 위한 두아름목장의 사육목표

구 분	사육두수	사육기간	연간회전율	평균일당증체	사료소요량	폐사율
99년현재	300두	11개월	1.1회전	1.60 kg	110포	3%
2001년목표	500두	10개월	1.2회전	1.73 kg	100포	2%

위 기준은 2개월령 분유태기와 600Kg 출하를 기준으로 한 것임.



◀ 고급육생산을 위해 수소송아지 전 두수를 약 70일령에 거세시켜주고 있다.

제거해 주며, 정밀한 사양관리가 이루어지면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면서도 “출하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거세를 하고 보자는 것은 매우 무모한 발상이며, 거세우는 비거세우에 비해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장개방의 분위기를 타고 지난 95년부터 육우도 거세 고급육을 생산하려는 움직임이 널리 확산되었지만 1~2년을 버티지 못하고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거의 포기한 상태에 있다.

두아름목장의 김진황사장은 96년 첫 출하 후부터, 구입하는 모든 송아지를 약 70일령에 전 두수 거세하여 성공적인 고급육 생산을 하고 있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두아름목장에서 전 두수를 거세하여 비육하는 목적은

첫째는, 고급육을 생산하여 보다 높은 단가를 받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출하한 약 500두의 거세우는 다른 농가의 비거세우에 비해 Kg당 300원~700원까지 더 높은 가격으로 출하하여 두당 150,000원 이상의 추가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13개월령이라는 단기사육에도 불구하고 2등급 이상의 출현율이 약 30%에 달하고

있다.

둘째는, 사양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거세우는 온순하고, 싸우지 않아 절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균편성이 쉬워 우사 활용도와 회전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지육율이 58%~59%에 달해 이미 축협공판장에서는 두아름목장의 출하를 기다리는 상인이 나타나기까지 한다고 농협의 출하담당자는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육우 거세 고급육생산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나? 김사장은 이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홀스타인종은 추운 지역의 종자로서, 높은 영양소와 에너지를 요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하고 육성단계부터 사료를 제한하여 급여하고, 이유스트레스와 거세 스트레스를 방치하여 정상적인 성장요건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고효율 사료를 자유 급여하고, 송아지 단계에서 스트레스 요인을

세계를 상대로 한 선의의 경쟁

김진황사장은 지난 1월 25일 미양면 갈전리의 제2목장에서 열린 “퓨리나 슈퍼 콘-비프 우수농장의 날” 행사에서, 전국에서 몰려든 1,00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낙농업을 하던 지난날, 우루과이라운드 축산물 수입개방에 반대하여 이들이 멀다하고 시위를 하러 다니면서도 밤12시부터 새벽까지 풀을 베어 착유소를 먹였다.

그리고 이런 억척스러움 때문에 두당 30Kg의 연평균 유량을 생산할 수 있었다”고 회고하면서, “이제 나이 50에 지금은 생산성향상으로 승부를 걸때가 되었다.

세계를 상대로 한 선의의 경쟁에 땀땀하게 나서자”고 호소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또한 협회이사를 역임하는 동안 정의과로 불려지던 관록답게 소사육농가를 대변하는 협회활동의 대해 아직도 애정어린 관심으로 조연도 아끼지 않고 있다. ☺

〈연락처: 0334-73-4323〉